

## 전라북도 만감류 소비자 패널 시장성 평가

김흥기\*, 장지혜\*, 양진호\*, 박윤숙\*, 노재중\*, 이정임\*, 고연실\*, 최혜진\*, 김경도\*, 최초롱\*,  
위태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e-mail:cobalt37@korea.kr

### Marketability Evaluation by Consumer Panel for Tangor, *Citrus tangerina*, in Jeollabuk-Do

Hong-Ki Kim\*, Ji-Hye Jang\*, Jin-Ho Yang\*, Yun-Sook Park\*, Jae-Jong Noh\*,  
Jeong-lim Lee\*, Yeun-Sil Ko\*, Hye-Jin Choi\*, Kyung-Do Kim\*, Cho-Rong Choi\*,  
Tae-Seok Wi\*\*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요 약

만감류(晚柑類)는 탄제린(*C. reticulata* × *C. maxima*)과 오렌지(*C. sinensis*)를 교배해 만든 품종들을 묶은 그룹으로 영어권에서는 탄제린(tangerine)과 오렌지(orange)의 합성어 탕고르(Tangor)로 부르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며, 최근 온난화 기후 변화로 남부지방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전라북도도 이에 따라 신속득 작목으로 만감류 재배를 시작하였다.

한라봉을 제외한 레드향, 천혜향은 제주도의 고유 브랜드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전라북도 만감류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공모에 의해 천혜향은 천년향, 레드향은 흥예향으로 정하여 사용 중이다.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소비자 패널은 남성이 3.33%, 여성이 96.67%이며, 연령대는 30대 13.33%, 40대 33.33%, 50대 40.0%, 60대 13.33%로 성비와 연령대가 구성되었다.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리커트 7점 척도 기준으로 요인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라봉은 과피 색깔, 껍질 벗김의 용이함, 외관, 식감은 우수하였고 당산의 조화, 과육 색깔, 향기는 조금 우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당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천년향에 대한 요인별 평가 결과, 외관, 과육 색깔, 과피 색깔, 식감, 향기는 우수하였으나, 당산의 조화, 당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껍질 벗김의 용이함은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흥예향에 대한 요인별 평가 결과, 당산의 조화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당도, 식감, 과피 색깔, 과육 색깔, 외관, 껍질 벗김의 용이함, 향기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라북도 만감류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품종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 만감류에 대한 적정 가격 수준 설문 결과 한라봉은 10,000원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12,000원, 11,000원 순으로 평가되었다. 천년향은 10,000원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11,000원과 12,000원이 각각 23.33% 순으로 평가되었다. 흥예향은 12,000원이 37.93%로 가장 높았으며, 11,000원 20.69%, 10,000원 17.24%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라북도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패널 시장성 평가 결과, 흥예향 품종의 반응이 매우 우수하여 전라북도 만감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집중 마케팅이 필요하였으며, 한라봉은 기존 시장 판매제품과 동등한 품질로 평가되었으나, 천년향은 기존 시장 판매제품보다 품질이 낮고 특히, 씨앗 발생이 많아 이에 대한 재배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50662021)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